

일본에서의 교환유학 생활

계명대학교

최아영

한국의 계명대학교에서 온 최아영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온지 아직 그렇게 시간이 지나지 않은 기분이 드는데, 벌써 귀국할 때가 가까워져 오다니,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반 년간의 유학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여러모로 성장으로 향하는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업을 통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어전공자로서, 모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전공과 관련된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 유학을 결심했기에, 무리를 해서라도 많은 수업을 들어, 조금이라도 많이 배우고자 하였습니다. 해외에서의 자취는 처음으로 하는 경험이 많고,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수업도 처음에는 알아듣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만, 점차 익숙해지며 매우 유익한 배움을 다수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수업은, 언어와 문화(일본사 정연습5A)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저희들 유학생과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의 모두, 그리고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여러분이 모여, 국가 아이덴티티나 한일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활동을 하여, 저로서는, 이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면 평생 깨닫지 못했



을 여러가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수업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 말하자면, 마주보는 것의 중요함입니다. 생각한 전부를 말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만, 마주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워, 이 수업을 들어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에 관한 정규수업도, 처음의 목표대로, 모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일본에 있기에 배울 수 있는 지식이나 의견을 얻을 수 있어, 매우 기쁘니

다. 특히 일본인 대상의 일본어·일본문학에 관한 수업이라는 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살아있는 의견이 유학기간 중의 무엇보다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업 외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밖에 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전통 예능을 관람·체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저는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의 서클인 교겐 연구회에 들어가거나, 국제교육 센터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참가하며, 최대한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자 하였습니다. 교겐 연구회에서는, 실제 교겐을 관람하거나 매주 있는 보통연습과 월 2회 정도의 시범연습을 통해 교겐에 대해 배웠습니다. 국제교육 센터의 이벤트 중에서는, 가부키 감상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학기간 중 신세를 진 분들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환유학생 담당의 하기와라 아키코 선생님, 유학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생활면의 정보도 신경 써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도교원인 이시이 쿠미코 선생님, 바쁘신 와중에도, 매월의 보고를 읽으시고, 조언해 주셔서, 그리고 매우 좋은 수업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